

도계 과정에 동물보호법 적용(I)

—이재은 역—

“**닭**을 도살할 때에는 칠면조, 오리와 마찬가지로 살아 있는 상태에서 발목을 거꾸로 매단다는 점에서 소나 돼지의 도살방법과는 다르다. 현재의 도계방법이 동물보호법에 저촉은 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닭의 발목을 사클에 걸어 놓았을 때 닭을 포함한 가금류들은 지치고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영국 농장 동물후생심의회(FAWC)와 같은 동물보호기관에서는 이 같은 도계방법에 매우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본고에서는 닭을 거꾸로 걸때 사용하는 장비, 육체적, 정신적 측면에서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동물보호 차원에서 기준설정을 재검토하고 있는 움직임을 정리한 것이다.”

영국에서는 1992년에 시중에서 약 5억8천2백만 수의 가금류가 도살됐으며(MAFF(농수산 및 식품부조사), 1993년) 그중 대부분은 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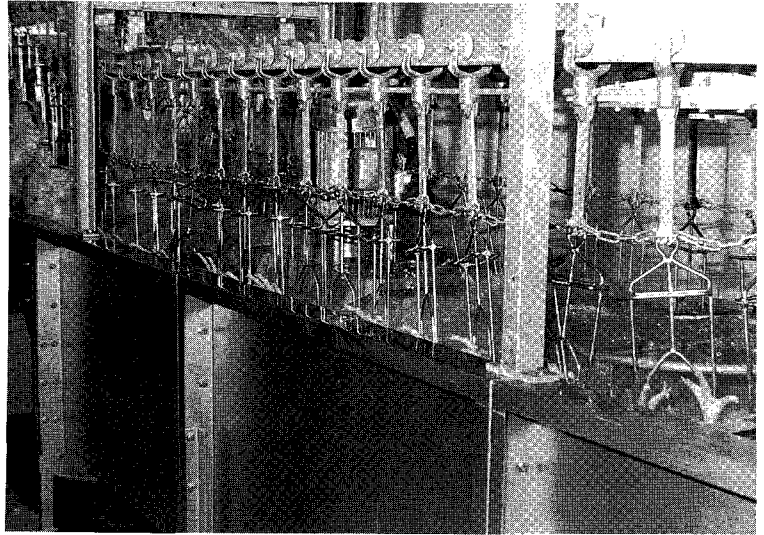
계이며 일부는 산란계, 칠면조, 오리, 거위 등이다. 같은 해 유럽에서는 육계만 53억1천6백만수가 도계처리 되었다(조사: 마틴, 1993). 도계는 기절시키고 도살하기 이전 작업에서 콘베이어에 살아있는 채로 발목을 사클에 거꾸로 매다는 점에서 다른 동물의 도살과는 다르다. 영국의 도계 처리장의 작동은 도계시 닭의 후생을 보호하는 점에서 법으로 규제되어 있다(HMSO, 1967).

영국의 도계 처리장은 대부분이 전부 기계화 시설로 되어있다. 도체를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기술과 장비를 여러해 동안 개발하고 있다. 단지 수작업은 자동화 작업을 위하여 그리고 도계 처리중 육안으로 검사하기 위한 지원 작업으로써 살아있는 닭의 발목을 사클에 매다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3~4년 동안에 살아있는 닭의 발목을 사클에 매다는 것이 동물농장후생심의회(FAWC)와 같은 여러

동물보호기관에서 우려가 생기
기 시작했다.

1. 1차 가공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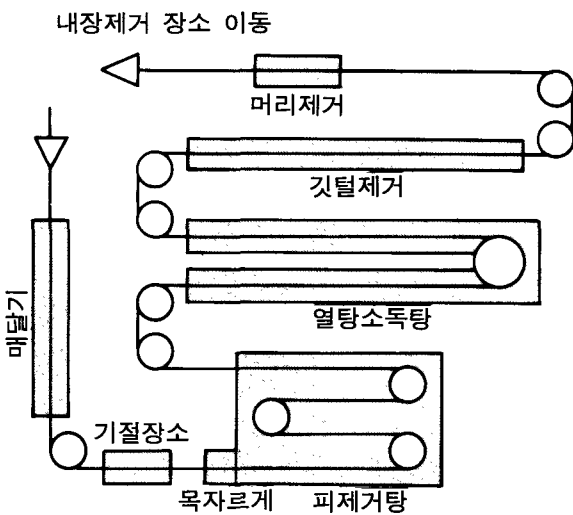
닭의 1차 가공처리 과정은 대부분의 공장이 공통적이다 (그림1). 첫째로, 닭은 운반용 용기에서 내려진다. 사용방법은 용기의 형태에 달려있다. 표준크기의 장이나 어리장은 주로 자동으로 내려지고 발목을 거꾸로 라인에 거는 장소로 연결 운반 된다. 고정된 어리장에서는 수송수단이 발목을 거는 샤클라인 장소까지 가서 사람손으로 각각의 닭이 거꾸로 걸리게 된다. 어떤 자동식 어리장은 수송수단으로 부터 이동되어 뒤집어 엎어지면서 닭이 떨어져 나와 발목이 샤클라인에 걸리는 회전판에 연결 이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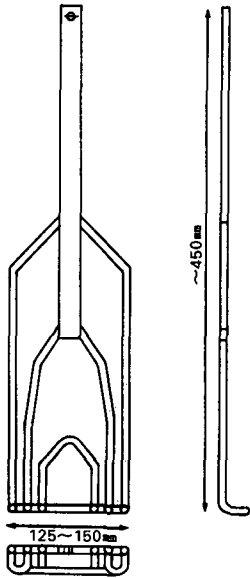
닭은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된 샤클에 거꾸로 매달려서 일차적으로 도계 처리하는 장소로 이동 된다(그림 2). 살아있는 닭들은 발목이 위로 매달려 머리부분은 아래로 향하게 된다. 샤클은 보통 시간당 6,000~12,000개의 속도로 움직이며 머리위의 콘베이어에 단단히 부착되어 있다. 현재 영국법은 샤클에 매달려 도살되기까지의 최대시간을 육계는 3분 칠면조는 6분으로 제한하고 있다(HMSO, 1990).

일단 발목이 샤클에 걸리면 닭들은 도살 장소로 옮겨진다. 영국법은 도살시 모든 가금류를 도살 시키기까지 감각없는 고통을 주도록 되어 있다(HMSO, 1967). 이법을 준수하기 위한 재래식 방법으로는 물속에 전기를 흐르게 하여 기절시킨다(케틀웰과 홀위스, 1990). 기절 시키거나 도살 시키기 위하여 닭을 전기가 흐르는 곳을 통과시킨다.

재래식 육탕 기절장소에서는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고 물은 닭이 부착하고 있는 샤클보다 더 높은 전압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샤클이



〈그림1〉 도계처리장의 일반 과정



〈그림 2〉 일반적인 샤클 형태

욕탕에 접근 하였을때 접지에 닿도록 되어 있다. 닭머리가 전기가 통하는 물에 닿았을때 닭의 임피던스(교류 회로에서의 전압과 전류의 비)에 비례해서 닭 몸통 안으로 전기가 흘러들어가 기절하게 된다.

만일 기절이 심장마비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닭은 재빨리 피를 빼고, 도살시 동물 보호에 관한 유럽 연합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동물의 의식이 되돌아오기전에 피를 빼야만 한다. 영국법은 기절탕을 지난 15초내에 피를 빼도록 요구 한다(MAFF, 1991). 닭의 도살과 피빼는 일반적인 방법은 닭목아지의 혈관을 끊어 버린다. 피를 빼고

나면 닭은 열탕 소독기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는 탈모 장소로 옮겨진다. 탈모 과정은 대단히 활발하다. 만약 닭이 샤클에 단단히 묶여있지 않으면 빠져나오게 되고 탈모기 안으로 빨려 들어 가게 된다.

탈모를 마쳤을 때는 머리는 잘려지고 도체는 내장 제거 라인으로 옮겨 진다. 이 작동은 수작업으로 샤클에서 도체를 빼내어 다시 수작업으로 다음 샤클라인에 걸던지 아니면 대부분의 도계장이 두 라인이 동시에 있어서 자동으로 옮겨져서 닭이 원래 매달려 있던대로 정확하고 효율성 있게 작동된다. 닭의 발목이 샤클에서 떨어지고 나면 샤클은 소독 세척되고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게 된다.

2. 법과 규제

유럽 연합 심의 위원회는 도계시 동물 보호 측면에서 「기절시키고, 도살하기전 동물의 제한」이라는 제목 아래에 다음과 같은 규제를 한다.



“가금류와 토끼는 적절하게 측정된 도구에 매달릴 수 있으며 기절 시키는데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충분히 피로를 푼 상태에 둔다.”

닭의 발목이 샤클에 묶여 압박을 받는 상태에 있지만 ‘충분하게 피로를 푼 상태’의 표현은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영국의 규제법은 쇠고랑 라인의 작동과 샤클 위치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여 닭의 보호 문제를 설명한다. 이들은 또한 샤클에 관련된 문제를 확인하는데 기본을 만들었으며 가금류의 보호가 절충되어야 하는 이유를 들고 있다. 1984년 도계(동물보호조건) 규제법(HMSO, 1984년)은 1967년 도계법 조항 3과 1984년 동물 건강과 보호법 40장 6항을 참조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도계전 필요 사항’

4. 도살을 대기하고 있는 어떤 닭에게도 불필요한 고통과 압박을 주어서는 안된다. 또한 기대할 수 있는 고통이나 압박을 허용해서도 안된다.

샤클에 닭의 발목을 매달때

7. 도계전에 샤클에 닭의 발목을 매달 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허용하거나 원인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

(a) 불필요한 고통이나 압박을 받을 수 있는 행동 또는

(b) 닭이 다쳐거나 또는 다른 원인 때문에 발목을 샤클로 묶으면 고통과 압박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될 때

샤클 라인의 작동

8. (1)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샤클 라인을 작동시켜야 한다.

(a) 닭이 매달리는 곳에 기구로 기절 시키거나 도살시킬 때까지 불필요한 고통이나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을 깨끗이 치워야 한다.

(b) 샤클에 매달려 고통 받는 것이 눈에 띄거나 고통 받는 닭을 샤클에서 꺼낼때 불필요한 고통이나 압박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준비를 해서 닭을 빼내야 한다.

(2) 샤클 라인, 기계 또는 다른 장비 등을 다음과 같이 준비하여 닭을 도계 기계에 매달아야 한다.

다.

(a) 제어 기계에 접근할때에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b) 고통을 덜기 위한 응급시를 제외하고는 도살되는 닭의 종류, 크기, 중량을 고려하여 설계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제한법들은 『닭보호를 위한 도살시간』에서 1982년 농수산 및 식품부(MAFF)에서 FAWC에 보고(MAFF, 1982년)를 하게되는 계기가 되었다.

닭보호를 위하여 도계에 관한 자발적인 실행법 조항은 1991년에 MAFF(농수산 및 식품부, 1991)가 규제를 더 강하게 하여 발표하였다. 조항은 다음과 같다.

‘만약 샤클이 닭에게 알맞은 크기가 아니거나 라인의 속도가 너무 빠르면 닭은 이로 인해 고통을 받게되므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기계의 라인 속도에 대한 규제법이나 의견은 없다. 표1은 보통 대부분의 도계기계 본체의 시간당 1,000~12,000개 사이의 동작 속도에서 닭을 각각의 샤클에 발목을 매다는 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샤클이 150mm간격으로 서로 떨어져 있으면 라인은 기계 속도 동안 1.05m 이동할 것이고, 6~7개가 설치된 기계에서는 0.90m의 거리를 이동하게 된다. 닭을 매달고, 기계를 편하게 작동시키거나, 또는 닭의 보호를 위한 특정한 최대 작업 속도는 달리 없다.

표1. 여러가지 라인속도에 따라 발목을 샤클에 채우는데 필요한 시간

수수/시간	라인 속도		마리당 필요한 시간(초)	
	MS(길이/초)	7 샤클	6 샤클	
6,000	0.25	4.2	3.6	
8,000	0.33	3.2	2.7	
10,000	0.42	2.5	2.2	
10,000	0.50	2.1	1.8	



FAWC보고(MAFF, 1982년)는 다쳐서 고통 받는 닭이 없나 보다 더 주의깊게 관찰하고 다친닭은 고통을 줄이기 위하여 샤클에 즉시 매달아 도계하도록 되어 있다. 닭을 내려 옮기는 사람이 다친 닭을 확인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손으로 닭을 죽이기를 꺼려할 수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리를 다친 닭을 사람손으로 목을 탈구시키는 방법으로 인하여 닭이 큰 압박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고통을 덜기 위한 샤클의 작동은 남아있는 샤클을 더 빨리 작동시켜야 한다. 이 글쓴이는 3일동안 도계 공장을 관찰한 결과 한마리의 닭도 샤클에 달아매기전에 끌라내지 않는 것을 보았으며, 깃털 제거후 죽은 후 도체 관찰은 많은 수의 닭이 오래된 상처와 푸른 피멍 및 눈으로 확인되는 부러진 뼈를 보게되었다. 법(HMSO, 1990년)에 의하면 이러한 닭들은 최대 3분 이내에, 칠면조는 최대 6분 이내에 도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원인이 되는 필요 이상의 압박은 목을 탈구시키는 것보다는 보다 더 동물 보호면에서 정확한 도계 방법으로 절충할 수 있다.

MAFF 실행법 조항에서는 다친 닭들은 즉

시 도계라인에 매달아 죽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서술한다(MAFF, 1991년). 그러나 나중에 불필요한 고통의 원인이 된다면(예를들면, 닭다리가 이미 부러진 닭) 발목을 샤클에 매달지 말아야 한다. 무거운 칠면조나 거위 그리고 판질이 기형인 닭들은 샤클이 부적절한 것을 주목하여야 한다.

캐스틴의 논문(1992년)에 의한 조사에 따르면 90%의 육계의 다리가 기형으로 약하여 불편하게 걷는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으며 이중 26%는 매우 심하여 이들의 보호를 생각해야 한다고 보고한다. 다리기형의 정도는 시중 계군인 경우 눈에 띄게 많기 때문에 대다수의 닭들은 샤클에 걸지 말아야 한다.

실행법 조항(MAFF, 1991년)은 매달지 않은 닭들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적절하게 목을 탈구시키거나 칼로 기절시켜 도살시켜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작업은 면허가 있는 도살자가 이행해야 하며(HMSO, 1991년) 도계자가 바로 없을 경우에는 닭들은 도계될 수 있을 때까지 폐쇄된 장소에 두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샤클을 채우는 사람이 도계하는 면허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규제법 조항 7 또는 8(1)b에 따라서 닭을 적소에 배치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우게 되면 남아있는 사람(샤클에 거는 사람)들이 계속하여 닭을 라인에 매달을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바로알림 농업이업
살아나는 농촌이업**